

## 중국-인도간 국경 분쟁 현황

홍진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전문연구원

### 주요내용

- (현황) 중국과 인도는 최근 국경지역에서 두 달여간 지속된 무력대치에 관하여 8월 28일 국경분쟁 종식에 합의하였음.
- (원인과 분석)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 원인은 △역사적 배경, △지정학적 영향, △자국안보 확보 등임.
- (전망과 시사점) 이번 국경분쟁 종식에는 브릭스(BRICs) 5개국 정상회의 개최 (9월 3~5일, 중국사먼)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되나, 충돌의 여지가 남아 있어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음.

### 1. 이슈 현황

■ 중국<sup>1)</sup>과 인도는 최근 국경지역에서 두 달여간 지속된 무력대치에 관하여 8월 28일 국경분쟁 종식에 합의하였음.

- 지난 6월 16일 중국 군대가 인도·부탄<sup>2)</sup>과의 접경지대인 동랑지역에서 도로 건설을 시작하였으며, 이에 부탄이 영토를 침범 당했다고 반박하자 동맹국인 인도군이 출동해 도로건설을 막고 대치 상태에 들어감.
- 또 다른 국경지역 라다크 지역에서는 양국 군인이 투석전과 육박전을 벌여 부상자가 발생하며 한때 국경 분쟁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함.
- 양국은 외교적 노력이 통하지 않을 경우, 전략적 군사행동을 개시할 것임을 선포하며 국경지역에 탱크,

1) 중국은 국경선이 2만 2117km로 세계에서 가장 길며, 육상에서 14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국경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대표적인 국경분쟁 지역으로는 인도국경과 남중국해를 꼽을수 있음.  
2) 1949년 8월 인도-부탄 우호협력 조약 체결로 인도는 1910년 체결된 영국-부탄 평화조약상의 영국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부탄의 대외관계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함.

미사일, 로켓포 등 각종 중화기를 배치하고 무력과시를 위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음. (표1. 중국-인도 국경분쟁일지 참조)

- 중국군은 시짙(西藏)자치구에 지대공미사일 홍치(红旗)-17을 배치하였고, 인도군도 국경에 기관포와 로켓탄을 장착한 무장 헬기 10여대를 배치한바 있음.

□ 양국 정부는 대치상태 종식을 위한 합의조건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나, 분쟁의 승패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은 인도군이 국경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했다는 점을 외교적 승리로 평가하고 있으며, 인도는 중국 측이 분쟁지역에서의 도로건설을 중단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밝힘.

## 2. 원인과 분석

### ■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 원인은 △역사적 배경<sup>3)</sup> △지정학적 영향 △자국안보 확보 등임.

□ 양국의 국경분쟁은 1900년대 초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1962년 악사이친에서는 무력충돌이 1개월 가까이 지속되어 인도 측에 3천여 명의 사망피해를 입힌바 있음.

- 1959년 중국의 통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티베트에서 일어나고 티베트의 정신적 지주인 달라이라마가 인도로 피신해 망명정부를 수립한 사건으로 중국과 인도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음.
- 무력충돌 이후에도 양국은 국경을 확정하지 못하고 실질통제선(LAC)이라는 사실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양측이 관할하고 있음.

□ 이번 분쟁지역인 실리구리 회랑은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및 중국에 둘러싸여있어 지정학적으로 매우 예민한 지역이며 인도 안보의 핵심이 되는 전략적 요충지임.

- 실리구리 회랑에 속한 아루나찰프라데시 주는 중국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분리주의자들의 게릴라 활동도 벌어지고 있음.

3) 1900년대 초 청나라가 망하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 영국이 일방적으로 맥마흔 라인을 선포하면서 영국령 인도제국과 중국 간의 국경선을 확정하였음. 중국인 이후 국경선을 불평등 조약으로 간주해 전통적 경계선을 국경선으로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맞선 반면 인도는 자국에 유리한 맥마흔 라인을 국경선으로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음.

그림 1. 중국·인도 영토 분쟁지역



자료원: 아주경제 DB

표 1. 중국-인도 국경분쟁 일시

일시	내용
6. 1	중국이 동랑지역에 인도 측 벙커 2개를 철거하라고 주장하였으며, 인도측이 거부하자 불도저로 철거함.
6.16	중국이 동랑지역 도로건설을 시작하면서 중국-인도간 대치상태
7.18	(중국) 국경지역에서 실탄을 발사하는 대규모 군사훈련 실시 (인도) 미국·일본과 함께 인도양에서 연례 연합 훈련 실시
8.15	동랑지역에서 투석전, 육박전을 벌여 부상자 발생함.
8.26	(중국) 인도양 대규모 실사 훈련
8.28	중국-인도간 국경분쟁 종식합의

자료원: 아주경제 DB

### 3. 전망과 시사점

- 이번 국경분쟁 종식에는 브릭스(BRICS) 5개국 정상회의 개최 (9월 3~5일, 중국샤먼)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되나, 충돌의 여지가 남아 있어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중국과 인도는 브릭스 회원국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양국간 대립이 지속되면 정상회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짐.
- 이번 국경분쟁의 합의는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추후 동랑지역에서 도로건설이 재개되는지에 따라 양국 간의 분쟁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CSF**

#### 참고문헌

- Oxford analytica, 인민왕, KIDA 국방연구원 세계분쟁데이터베이스 등

 **알립니다**

- 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